

# 포도주에 브랜디 넣은 포트 와인, 영국인 사로잡다



포트 와인용 포도는 포르투갈 도우루강 주변의 가파른 경사지에서 자란다. 군데군데 계단식 포도밭도 보인다.

[중앙포토]

손관승  
인문여행작가



**포르투갈 제2 도시 포르투 명물  
옛 상인들 '팩토리 하우스'서 회합  
600년간 교류 영국의 지배력 상징  
보르도 대신할 와인 수입처로 제격  
"좋은 와인은 좋은 사람을 만든다"  
셰익스피어의 와인 사랑 문장 유명**

다. 팬데믹이 창궐하기 직전에도 3월에 방문했다. 이 도시는 발바닥으로 만나야 한다.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노면 전차가 느릿느릿 다니는 언덕 위의 비좁은 구시가지 골목을 헤집고 돌아다니려면, 여행자 내면의 유랑까지 즐기려면 무조건 그래야 한다. 게다가 도우루강이 있지 않은가?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낭만적인 강은 존재로 인해 실제로 사진이 잘 나오는 도시가 바로 포르투다. 우리가 오랫동안 오로지 대륙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도시 사람들은 해양을 응시하였다. 한국과 포르투갈 모두 대륙의 끝에 달려있는 작은 나라이지만 관점의 차이가 큰 격차를 낳았다. 하지만 그것도 이미 과거형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걷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였다. 강을 따라 흐르는 보트에 포

도주 광고가 실려 있었으며 테일러(Taylor's), 그라함(Graham's), 오프레이(Offley), 샌드맨(Sandeman), 다우(Dow) 등 대부분 영국 이름들이다. 포르투갈 제2의 도시에 왜 영국 이름 투성이인가? 그렇지 않아도 무명의 영국 여자 조앤 톨링이 이 도시에서 결혼해 살다가 이혼한 뒤 모국으로 돌아가 '해리 포트' 시리즈를 터뜨리는 바람에 가는 곳마다 그녀의 이름을 상품화하고 있는 포르투였다.

그 비밀은 도우루강 북쪽 구시가지에 있는 '팩토리 하우스'(Factory House)에서 찾아야 한다. 영국과 포르투갈 사이의 600년 교류 역사와 포트 와인인에 대한 영국의 지배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17세기부터 오프루 항구를 중심으로 포트 와인을 거래하던 영국 상인들은 이권단체를 조직해 정규적인 회합을 가졌는데 그 모임 건물을 가리켜 팩토리 하우스라 불렀다. 18세기 후반 현재의 건물로 옮겨와 활동 중이다.

매주 수요일마다 팩토리하우스에 열리는 '수요 점심'(Wednesday Lunch)이라는 모임이 핵심, 영국인 혹은 영국계 후손으로 포트 와인을 거래하는 회사에만 문호가 개방되는 배타적 이익단체다. 대표적인 회사 테일러는 설립연도가 1692년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다. 현재의 회원 수는 25명, 회원들은 점심 모임에 업무와 관련 있는 다른 회사나 큰 고객, 영향력 있는 언론인을 초청할 권한이 있다. 회원들에게는 크고 작은 규약이 있는데 그중 재미있는 것은 회원별로 각자 자신의 상표가 들어 있는 10개에서 15개의 와인 보관함에 와인을 채워 이곳에 제출해야 하는데, 특별한 저녁 행사에 들어가며 그 와인을 상표를 가린 채 내어놓은 뒤 빈티지 알아맞히기 게임을 한다고 한다.

영국은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인들이 와인 맛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이미 중세에도 와인 사랑은

대단했고 포도주를 좋아하는 셰익스피어는 '헨리 8세'에 멋진 문장을 남겼다. "좋은 동반자, 좋은 와인, 좋은 환대는 좋은 사람을 만든다."(Good company, good wine, good welcome, can make good people.)

영국의 주된 와인 수입처는 보르도 지역이었다. 한동안 그곳을 영국이 지배하였던 덕분인데,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에 패한 뒤 보르도 와인 공급도 끊겼다. 이미 포도주 맛에 길들여진 영국의 귀족과 부호들은 대안을 찾아야 했다. 그러다가 찾아낸 지역이 지금의 포르투와 인근 지역. 하지만 장거리 해상 운송 도중 와인이 식초처럼 변질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와인업자들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브랜디를 포도주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면 발효가 중지되어 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술이 바로 포트 와인이다. 그건 영국 측의 이야기이고 포르투갈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저 그 방법을 알아냈다고 주장한다.

포트와인은 높은 도수의 술을 좋아하는 영국인의 미각에도 딱 맞았다. 원래는 생산지역 이름에 따라 포르투라고 해야 하지만 영국인이 주도했기에 영어로 포트 와인이란 이름이 국제적으로 굳어졌다. 포르투의 도우루 강을 따라 히베이라(Ribeira) 지구에 가면 와인배들이 물러 있어 다양한 포트 와인을 경험할 수 있다. 10유로 정도면 간단히 한잔 할 수 있지만 형편이 좋은 사람은 30-40년 성숙시킨 빈티지, 100년 이상된 최고급 토니(Tawny) 포트도 능력이 된다면 물론 즐길 수 있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손관승 MBC 베를린특파원과 MBC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리더를 위한 하멜 오디세이아', '괴테와 함께한 이탈리아 여행' 등 여러 책을 썼다.



포트 와인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